

보도 시점 2026. 8. 28.(금) 16:00 배포 2026. 8. 28.(금) 14:00

‘20년, 10배, 193조 원... 그리고 국민의 60초’ 뮤지컬부터 수어 영상까지... 133가지 ‘현장 공감 현금영수증 슷폼’

1 공모전 취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슷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6. 8. 28.(금) 14시, 수상작 15편 선정·총 상금 1천만 원
- '26.5.27.(수) ~ 6.26.(금) 한 달간 총 13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성황리에 마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8일(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슷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5억 건에서 49.8억 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6조 원에서 193.8조 원으로 10배나 증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 이번 출품작들은 뮤지컬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까지 다양한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현금영수증 체험담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 국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창의성·적합성·과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 숫자보다 이야기가 빛난 시상식

특색 있는 솟품 에피소드

① 가족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

- 어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만든 영상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김웅 님은 “가족 간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몇 번씩 다시 찍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촬영을 마친 후에는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 이어 “미래 납세자인 아이에게 세금의 올바른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 동상을 수상한 「brotherhood」팀(김준영, 구의강, 이인희, 정예민)은 팀원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는 것을 계기로 수어로 설명하는 장면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
- 팀원들은 “기존 공익 영상에서 수어나 자막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③ 음식점 사장의 1인 2역(가게주인 vs 손님)

- 장려상을 수상한 박진용 님은 현재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로, 가게주인과 손님의 1인 2역을 맡아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 그는 창업 초기에 손님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어려워하는 일상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주인과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자연스럽게 주고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④ 만들면서 알게 된 현금영수증의 가치

- 또 다른 장려상 수상자 「공제자들」팀(최종현, 조효정, 최현우)은 “사회 초년생이라 현금영수증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며,
- “이제는 어디를 가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변화된 일상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대상 수상작)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현금영수증 결제 이야기'

- 총 15편의 수상작(참고) 중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정지현 님의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 “일상 속 현금영수증을 재미있게 풀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래와 춤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자칫 어색하거나 껄끄러울 수 있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긍정적이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평가

- 내부 심사위원은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을 담아낸 다채로운 영상들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 외부 심사위원 역시 “이번 공모전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발급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도 '현금영수증 답게'

- 한편, 이번 시상식은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유명 시 구절을 재치 있게 패러디한 ‘챙겨야 돌려받는다. 모아야 기뻐된다. 현금영수증이 그렇다.’라는 현수막 슬로건이 시상식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 이와 함께 수상자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현금영수증’과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수상자와 임광현 국세청장이 함께하는 ‘즉석 솜뭉치’ 촬영 이벤트가 진행되어 현장의 열기와 소통의 의미를 더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장 인사말

-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의 시선으로 현금영수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수상자에게 드리는 상장은 현금영수증을 닮게 만들었다. 영수증은 금액을 기록하지만, 오늘 이 상장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담았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서 ‘당연히 챙기는 것’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3 수상작, 국민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 국세청은 이번 수상작 15편을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 또한, 전국 세무서 민원실 TV를 통해서도 송출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안내문과 각종 홍보물 내 QR코드를 연계하여,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국세청의 주요 정책을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형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담당자	서기관 최홍신 (044-204-3222)

붙임 1

현금영수증 슷폼 공모전 시상식 사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국세청장(청장 임광현)



현금영수증 슷폼 공모전 현수막 사진

제 6128 호



현금 영수증 슷폼 공모전

대 상

작 품 명 :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성 명 : 정 지 현

“ 영상은 짧게, 변화는 길게 ”

당신의 영상은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서 ‘당연히 챙기는 것’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의 발급이 투명한 거래를 만들고
한 사람의 실천이 성실납세 문화를 만듭니다.

현금영수증의 가치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세상에 알린 당신께
이 상을 드립니다.

발 급 일 자 2026년 08월 28일

국 세 청 장 임 광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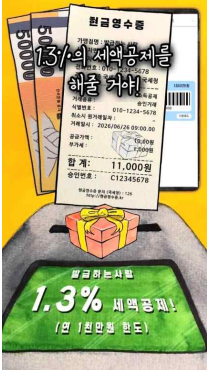


참 고

「현금영수증 샷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시상 등급	수 상 작 품			수 상 자
	작 품	작 품명	작 품 설명	성명(팀명)
대상 (1)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익숙한 말로 시작하며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하루를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유쾌한 스토리와 음악을 담아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함	정지현
금상 (1)		동행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이벤트? 탈세로 가는 걸음입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금 할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이수지
은상 (1)		진짜 좋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상 속 상황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함. 한 사람의 요구가 주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함	김병철 이해진 조선영 이도은 (하다하다)
동상 (2)		기억은 사진으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웨딩 준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금 결제 할인 제안에서 출발하여 ‘기억은 사진으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라는 메시지를 통해 영수증 한 장을 남기는 작은 실천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달함	김인기 노홍현 한서인 변성혁 (기적기획)
		“저기요! 돈 떨어졌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순간을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해 현금영수증 혜택을 표현하고, 수어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은 우리 주머니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라는 메시지 전달함	김준영 구의강 이인희 정예민 (brotherhood)

장려상 (10)		왜 이것만 넘어가세요?	소비자들이 결제 오류나 환불, 쿠폰 누락 등의 작은 권리는 꼼꼼히 챙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상황에서는 쉽게 포기하는 상황을 영상에 담아 현금영수증 역시 소비자가 당연하게 챙겨야 할 권리임을 전달하며, 손택스를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	조윤진 김진아 차명재 (찐운명)
		미래를 바꾸는 한마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2년 후 미래에서 온 딸이 엄마를 찾아와 "엄마가 그동안 안 한 게 있어서 힘들게 찾아왔지"라고 말하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미래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고원기 김은정 고서연 (가족)
		현금영수증, 먼저 물어본 작은 확인	현금결제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망설이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장님의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작은 확인 한마디가 손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투명한 거래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박진용
		어느날 사람들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머리 위 숫자가 변화하는 시각적 연출을 통해 현금영수증의 가치와 혜택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친숙한 일상 속 스토리텔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	최종현 조효정 최현우 (공제자들)
		현금영수증,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미용실이라는 일상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의무발행제도, 무기명발급 제도 등에 대해 자연스럽고 쉽게 전달함	한지혜

장려상 (10)		1인칭 현금영수증 시점	직접 그린 그림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이 1인칭이 되어 소개하는 영상으로 현금영수증의 혜택,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등의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배유미 강영훈 (디로그)
		슬기로운 현금사용기	자연스러운 일상을 배경으로 아이와 토끼 캐릭터 간의 다정한 대화를 통해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함	김웅
		행복을 맞추는 퍼즐 - 현금영수증	손그림 애니메이션으로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혜택을 퍼즐 조각에 비유해 표현하였으며, 퍼즐 조각이 모여 큰 행복의 나무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며 영수증 한 장이 모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최미성
		우리는 지금 현금영수증이 궁금하다	아이들에게 현금영수증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전개하여 현금영수증 혜택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	김윤식
		OX로 알아보는 현금영수증의 모든것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 형식을 활용하여 짧은 퀴즈와 간단한 해설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함	반효진 손희진 (모이럼)